



2016전국보통체육대회배드민턴리그전에서 뛰어난 기량을 지닌 여고부 선수들이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송여고 이소원·백하나(왼쪽 사진)와 범서고 박가은·김성민도 대표적인 유망주들이다. 김현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 배드민턴 여고부 춘추전국시대

### 전국보통체육대회배드민턴 7일째

청송·범서·충주·광주체고 등 경쟁  
이유림·박가은·김성민·백하나 등  
기량 좋은 1학년생 많아 발전 기대

국내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에선 유망주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런 와중에도 배드민턴은 꾸준히 월드 클래스의 유망주를 키워내며 대표적인 효자종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여고부 등부가 '풍년'이다. 특정학교가 잘 키운 특정선수 1, 2명을 앞세워 강자로 군림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절대강자도, 절대약자도 없는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 ●여고부 최강? 어디가 우승해도 이상할 것 없다!

4일 2016전국보통체육대회배드민턴리그전 7일째 경기가 펼쳐진 경북 김천체육관에서 청송여고와 범서고 A팀의 여고부 단체전 결승전이 열렸다. 오전 9시

부터 시작된 이 경기는 낮 12시30분이 넘어서야 끝났다. 5게임까지 모두 치르는 접전 끝에 청송여고가 3-2로 범서고 A팀을 누르고 우승했다. 청송여고는 창단 1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대회 정상에 올라 기쁨이 배가됐다.

치열했던 이날 결승전만큼이나 올해 여고부 판도는 오리무중이다. 우승 후보 중 하나였던 충주여고 A팀과 광주체고 A팀이 각각 8강과 4강에서 범서고 A팀을 만나 탈락했다. 우승 후보 두 팀을 잇달아 꺾은 범서고 A팀은 또 다른 우승 후보인 청송여고에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어느 팀이 우승했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을 정도로 대등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중·고교 유망주를 관리하고 있는 김학균 국가대표 후보선수단 전임지도자는 "올해 여고부는 청송여고, 범서고, 충주여고, 광주체고 외에도 전력차가 크지 않아서 이번 대회처럼 토너먼트 편성에 따라 8강에서 우승 후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자주 일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기량이 두드러지는 1학년생이 많은 점도 여고부 춘추전국시대의 한 요인이다. 김학균 전임지도자는 "유독 기량이 좋은 1학년생이 많다. 장곡고 이유림, 범서고 박가은, 김성민, 청송여고 백하나 등은 한 학년 위 선배들을 이길 정도다. 최근 몇 년 중 지금이 여고부 인제가 많이 두드러지는 시기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자배드민턴에는 큰 호재다.

### ●매원고, 남고부 정상 등극

남고부 단체전 결승에선 매원고와 라이벌인 전대사대부고 A팀을 게임스코어 3-2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5단식에서 매원고 애시스 김영민은 전대사대부고 A팀 박민혁을 세트스코어 2-0(21-15 21-14)으로 제압하고 팀에 우승을 안겼다. 이로써 매원고는 봄철 대회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중등부에선 화순중 A팀이 진광중을 3-1, 성지여중이 구남중을 역시 3-1로 꺾고 각기 남녀부 정상에 올랐다.

김현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 배드민턴 초등부 단체전 복식이 사라진 이유

한국배드민턴은 전통적으로 단식보다 복식에서 강세를 보여왔다. 한국배드민턴은 역대 올림픽에서 모두 6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이 중 단식 금메달은 1996애틀랜타올림픽 여자단식의 방수현(은퇴)뿐이다. 이러한 추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복식에선 남자·여자·혼합 모두 세계랭킹 10위 안에 최소 2개 조(남자 3개·여자 2개·혼합 2개)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단식은 남녀를 통틀어 성지현(여자단식 세계랭킹 8위)뿐이다. 단식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대한배드

민턴협회는 지난달 29일 경북 김천에서 개막한 2016전국보통체육대회배드민턴리그전부부 초등부 단체전에 한해 복식을 없애고 5게임 모두 단식으로만 치르도록 방식을 바꿨다. 그동안 초등부 단체전은 여타 단체전과 마찬가지로 1-2·5게임은 단식, 3-4게임은 복식으로 치러왔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김중수 전무는 4일 "어린 선수들의 경우 육성이 최우선이지만, 학교 지도자들은 당장의 성적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초등부조차 단식을 잘하는 선수들을 단체전 복식에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복식을 다 뛰니 힘이 들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복식을 택하는 선수들이 많다. 그래서 초등부 단체전에선 아예 복식을 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향후 초등부 단체전은 단식으로만 5게임을 치를 예정이다.

김 전무는 이어 "주변에서 '한국배드민턴은 왜 단식이 약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지도자들의 지도방식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지도자 연수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 스물넷... 불꽃처럼 살다간 '천재 스케이터' 노진규

2010년 국가대표 발탁돼 승승장구  
2011년 세계선수권 3관왕 등 두각

"노진규처럼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는 없었다!"

'천재 스케이터' 고(故) 노진규를 기억하는 이들은 하나 같이 그를 '훈련벌레'였다고 입을 모았다. 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좋아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했고, 가장 스케이트를 잘 탔던 선수. 그러나 하늘은 무심하게도 재능이 반짝 반짝 빛났던 그에게 너무도 큰 시련을 안겼다. 그는 2014년 뼈암의 일종인 골육종 판정을 받았고, 2년여의 투병 끝에 3월 24년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 ●'제2의 안현수'를 꿈꿨던 천재 스케이터

노진규는 천재 스케이터였다. 2010년 처음 국가대표로 발탁돼 그해 열린 세계 주니어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시니어국가대표가 된 뒤에도 승승장구했다. 2011년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1500m 금메달, 5000m 계주 금메달을 목에 건 데 이어 같은 해 열린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1000m, 1500m, 3000m에서 3관왕에 오르며 중



남자쇼트트랙대표팀 애시로 활약했던 노진규(앞)가 3일 골육종으로 24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2013년 쇼트트랙 국가대표선발전 남자 1500m 결승전에서 1위로 역주하던 고인의 모습. 뉴시스

합우승을 거머쥐었다. 2012년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종합 2위, 2013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1000m·1500m 2관왕을 차지하며 안현수 이후 남자대표팀을 책임질 차세대 애시로 주목됐다.

### ●악성종양도 막지 못했던 쇼트트랙 향한 열정

노진규는 2013~2014시즌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가 끝나고 왼쪽 어깨 통증을 느꼈다. 병원 검사 결과 종양이 발견됐다. 그러나 암도 쇼트트랙을 향한 그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 생애 첫 올림픽 출전을 위해 수술을 미루고 남자대표팀이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데 앞장섰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 '동네 골프장 출신' 짐 허먼, 꿈의 무대 마스터스 초대받다

셀휴스턴오픈 최종 15인더파 우승  
프로데뷔 106경기 만에 PGA 첫승

39세의 '무명 골퍼' 짐 허먼(미국)이 프로 데뷔 106경기 만에 PGA투어 첫 우승을 차지하며 '꿈의 무대' 마스터스에 초대받았다.

허먼은 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협블의 휴스턴 골프장(파72·7420야드)에서 열린 셀휴스턴오픈(총상금 68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함께 15인더파 273타로 헨리 스텐슨(14언더파 274타)을 1타 차로 꺾고 우승했다.

극적인 우승만큼이나 허먼의 인생은 골공이 심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신의 허먼은 2000년 프로가 됐지만 PGA투어가 아닌 동네 골프장에서 클럽 프로로 일했다. 골프장을 찾아오는 아마추어 골퍼들을 대상으로 레슨을 하거나 매장 관리를 맡았다. 종종 미니투어 등에 출전하면서 프로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PGA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무명 골퍼 짐 허먼이 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협블의 휴스턴 골프장에서 열린 PGA투어 셀 휴스턴오픈에서 데뷔 106경기 만에 감격적인 첫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에 입맞춤하고 있다. 협블(미 텍사스주) | AP뉴시스

평범했던 그의 삶은 당시 일하던 골프장의 소유자였던 도널드 트럼프와의 인연으로 인생이 달라졌다. 허먼의 재능을 눈여겨 본 트럼프가 용기를 줬고, 그의 말에 힘을 얻은 허먼은 2008년부터 2부적인 웨딩컴퓨터(당시 네이션와이 드투어)를 뛰면서 PGA투어에 도전했

다. 꿈은 3년만에 이뤄졌다. 2010년 웨딩컴퓨터 무나클래식에서 우승해 2011년 PGA 무대를 밟았다. 그러나 생각처럼 탄탄대로를 걷지는 못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벌어들인 수입은 97만9938달러 밖에 되지 않았다. 연간 투어 경비로만 20만 달러 인박이 들어가는 만큼 큰 돈을 벌지 못했다. 어렵게 투어생활을 이어온 허먼은 2015년부터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27개 대회를 뛰여 121만2778달러를 벌었고, 처음으로 시드도 유지했다.

프로 데뷔 후 106경기 만에 우승을 차지한 허먼의 인생은 확 달라졌다. 122만4000달러(한화 약 14억3000만원)의 상금을 손에 쥐었고, 7일부터 개막하는 별들의 잔치 마스터스(총상금 1000만 달러)에 출전할 수 있는 마지막 초대장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RBC헤리티지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PGA 챔피언십 등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선수 중에선 김시우(21·CJ오쇼핑)가 공동 13위(합계 9언더파 279타)로 가장 높은 순위에 자리했다. 주영로 기자



리디아 고(오른쪽 세 번째)가 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 미션힐스골프장에서 열린 LPGA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파란색 셔츠를 입고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통산 두 번째 메이저 우승에 성공한 리디아 고가 대회 전통에 따라 캐디, 가족과 함께 18번홀 그린 옆에 위치한 호수에 빠지는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란초미라지(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시스

## 리디아 고 "마지막 홀 버디가 우승 만들었다"

LPGA 시즌 첫 메이저 ANA 우승  
'한 달 만에 복귀' 전인지 공동 2위

침착함, 평정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멘탈.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시즌 첫 메이저 우승트로피를 품에 안으며 '호수의 여인'이 됐다.

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의 미션힐스 골프장 다이나쇼 코스(파72·6769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총상금 260만 달러) 최종 4라운드. 매일 리더보드를 맨 위에 새로운 이름이 오르는 가운데 누가 '호수의 여인'이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됐다. 이 대회는 전통에 따라 우승자가 18번홀 그린 옆에 있는 호수에 다이빙을 하는 세리머니를 펼쳐 '호수의 여인'으로 부른다.

최종 4라운드가 시작되기 전까지 렉시 톰슨이 호수에 가장 가까이 가 있었다. 그러나 경기시작과 함께 예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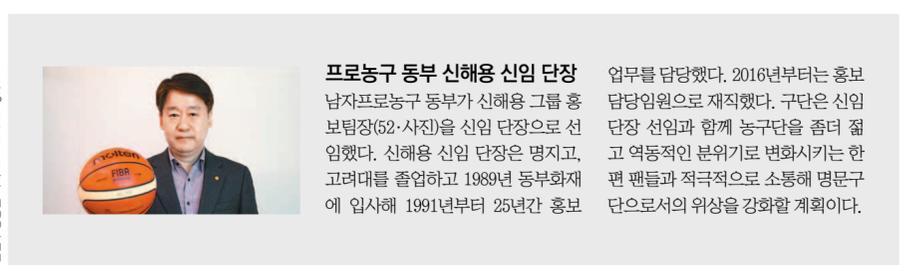
가 다르다. 톰슨은 초반부터 보기를 쏟아내며 1위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 뒤를 아리아 주타누간(태국)이 차지했다. 주타누간은 2위 그룹에 1~2타 앞서나가면서 우승에 다가섰다. 하지만 LPGA 우승 경험 없는 주타누간은 스스로 무너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건 리디아 고다. 18번홀(파5)은 그동안 술한 명장면을 연출해 낸 이변의 장소다. 장타자가 아닌 리디아 고는 교과서 전략을 선택했다. 주타누간과 공동선두였기에 버

디안 성공해도 압박할 수 있었다. 리디아 고는 무리하지 않고 3온을 선택했다. 전략은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다. 세 번째 샷으로 공을 홀 1m도 되지 않는 지점에 붙이면서 손쉽게 버디를 성공시켰다. 이날 보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버디만 3개 클라낸 리디아 고는 마지막 홀 버디로 합계 12언더파 276타를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

리디아 고는 "72홀 경기 중 마지막 홀에서의 버디가 가장 좋았다. 그 버디가 우승을 만들었다"고 기뻐했다. 지난해 에비앙챔피언십에서 최연소 메이저 우승을 차지한 리디아 고는 7개월 만에 두 번째 메이저 우승과 함께 개인통산 12번째 우승에 성공했다. 또 이번 우승으로 최연소 메이저 2승(18세11개월) 기록도 세웠다.

부상 이후 한 달 만에 복귀한 전인지는 공동 2위(11언더파 277타), 렉시 톰슨 5위(9언더파 279타), 박인비와 박성현은 나란히 공동 6위(8언더파 280타)에 올랐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판인 | 정영로 기자 saizoo@donga.com

프로농구 동부 신해용 신임 단장  
남자프로농구 동부 신해용 그를 홍보팀장(52·사진)을 신임 단장으로 선임했다. 신해용 신임 단장은 명지고, 고려대를 졸업하고 1989년 동부화재에 입사해 1991년부터 25년간 홍보

업무를 담당했다. 2016년부터는 홍보 담당임원으로 재직했다. 구단은 신임 단장 선임과 함께 농구단을 좀더 젊고 역동적인 분위기로 변화시키는 한편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명문구단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